

유행인가? 실행(Praxis)*인가? **

-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담론분석과 성찰 -

Trends or Praxis?

- Discourse Analysis and Refl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amily Studies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최 연 실***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Professor : Choi, Youn-Shi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illustrate academic trends that can be gleaned from family studies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o gain a suggestion of the relatedness between discourse and practice by reviewing research in that field. The results of discour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family studies set limited focal subjects. Second, the research accepts assimilationism as a primary multicultural policy set forward by the Korean Government. Third, the research reflects a more or less conservative consciousness of family maintenance. Fourth,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perspectives from the perception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passive minorities to more active agents. Lastly, the research perceives family life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a project for practice.

--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가족연구(family studies), 실행(praxis)

* 여기에서의 '실행(praxis)'은 '실천하는 행동'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praxis'는 1920년대에 발원한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 대한 주관주의적 해석에 관심이 있었던 루카치나 그람시에 의해 주도된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맥락에서 주로 거론되었다. 특히 그람시는 다른 비판이론가들 이상으로 이론과 실천의 결합으로서 'praxis'를 강조하였는데, "실질적" 혹은 "실용적"이라는 의미보다는 "해방적(emancipatory)"인 사회적 행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람시보다는 덜 혁명적이지만 현대의 비판이론가들은 여전히 학문에서의 'praxis'를 요구한다. 즉 그들은 학자들의 연구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져야 하고, 연구결과가 그들이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쾌상 역, Gouldner 저, 1981; Osmond, 1987:105).

** 이 논문은 2008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최연실 (E-mail : yschoi@smu.ac.kr)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습니다.
 ‘기’가 서로 합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오강남 풀이(1995), 노자 <도덕경>, 제 42장 앞부분)

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위기의 고조가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우선적 관심사로서 사회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그 열기와 반응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관심사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일면적으로 당연시되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가 농촌총각의 혼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한 중국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 추진 사업(이혜경, 2004; 홍기혜, 2000) 이후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의 혼인관련 인구통계지표에서 주목 받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한국의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신부들의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략 혼인건수의 10-11%가 한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자녀수도 2008년 현재 5만 8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2009. 5). 또한 199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수도 매년 늘어나 2008년 12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원은 약 156,000명으로 공식보고되고 있으나(보건복지가족부, 2009. 5),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옥선화, 2009). 10년 간격으로 한국 사회의 외국인 체류자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49,507명에 불과하다가 2000년에는 491,324명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1,249,76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김현미, 2008).

‘다문화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변화는 한국사회를 그동안

지탱해 왔던 견고한 단일혈통 이데올로기나 자민족중심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주자와 다문화의 문제는 최근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안정적인 사회통합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노동력의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난민, 미등록 이주자 등을 통틀어 한국사회에는 이른 바 새로운 ‘시민들’이 등장하고 이제까지 ‘타자들’이었던 그들과의 공존은 이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고민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제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맥락 안에서 차이의 인식과 인정, 그리고 재분배를 둘러싼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김영옥, 2007). 물론 한국 정부의 소수자 통합정책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혈통주의의 잔상을 보게 되거나,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관주도형’이라는 지적(김희정, 2007)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세계화의 흐름 속에 내던져진 우리 정부의 대처 노력 가운데 일환이었다는 인식 하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에 힘입어 ‘다문화’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정책적·학문적 초점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는 1991년 외국인산업연수제가 마련되었다가, 2003년 11월에는 고용허가제, 2006년도에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6년 4월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정책이 수립되었고, 2008년 9월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전국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대 설치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다문화’는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전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시선을 받아 왔으며, 열띤 이론적·학문적

공방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문화’ 관련 연구주제가 각종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논문이나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연구용역과제에서도 가장 시의성 있는 주제로 떠오르면서 ‘다문화’는 하나의 학문적 ‘유행’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서 생활과학 분야나 가족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분야들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이나 담론이 거의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이 분야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연구분야로서의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실시한 국가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 인력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현실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인이주를 하게 된 여성들이고 그들이 겪는 경험이나 문제는 주로 그들이 형성한 가족이나 가정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이나 가족생활을 주로 다루어 왔던 생활과학이나 가족학에서 그들이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 분야의 인력들이 다문화가족을 접하는 일차적인 현장에서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의 시행을 둘러싸고 연관된 연구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수긍이 간다. 경험과학으로서의 생활과학은 실천적 개입을 목표로 하는 성향이 있으며, 가족학 연구들 중에서 이와 연관된 연구들은 대부분 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이 분야의 연구들은 ‘실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등의 분야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분야에서 연구 경향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연구들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관련 지배담론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떠한 이론적·학문적·실천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담론은 그 시대에 논해지는 모든 언설이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담론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며, 역사적·사회적으로 설정된다. 특히 지배담론은 이데올로기 실천이라는 광범위한 국면에서 벌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구성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윤평중, 1998; 임상훈 역, 다이안 맥도널 저, 1992: 11-14). 담론은 현실을 당연시되는 세계로 수용하도록 영향을 미치며(박해광, 1999), 단순한 언어적 반영물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하며 재해석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하고 또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김인숙, 2004: Gubrium & Holstein 저, 최연실 등 공역, 1997). 담론이론에서는 언어를 일종의 사회적 실천으로 보는데, 실천은 사회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회는 지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담론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담론에 대항하고 투쟁하여 사회에 다시 또 영향을 미치는 담론도 존재한다.

이러한 담론분석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학문적 실천과 현실적 개입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민해왔던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에게 모두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학문적·실천적 현장에서의 노력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현실인식들을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나아가 바람직한 개입의 준거점들을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를 다루기 위한 배경으로서, 먼저 한국의 다문화환경과 정책적 현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여러 관점과 쟁점을 논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담론 분석에 대해 언급한 후,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담론분석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언설의 유형 중 학술논문을 주요한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관련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발표된 다문화가족관련 논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음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II. 한국의 다문화 환경과 정책적 현실

1. 한국의 다문화 환경과 ‘한국형’ 다문화주의

한국의 다문화 환경을 논하는 작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담론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시적인 사회체계의 맥락을 살펴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결코 동일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서 한국사회가 겪어왔고 위치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주의가 검토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환경을 오경석(2007: 41-43)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주민의 유입경로는 외국 군대의 주둔, 디아스포라의 귀환, 자원적인 이주자들이다. 민족-국가체계의 안정성은 취약하며 강압적인 국가 정당성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정책적으로는 결혼이민자)가 핵심적인 갈등의 주체로 등장하며, 다문화적 분규의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합법적인 정주 및 노동의 권리 보장(정책적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의 시민권)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의 기초는 순혈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통합정책이며, 다문화지향성은 인권, 노동 의제로부터 문화 의제로 전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 환경은 일반적 차원에서 다문화 환경의 이념형으로 유형화되는 세 가지 유형(식민지 신민들의 본국으로의 유입/정복에 의한 토착민의 이주자화, 신이주민들/식민정부에 의한 자의적 종족 혼합)의 어디에도 귀속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환경이 이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적절한 논의는 다문화주의를 거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시민사회적 멘탈리티를 형성하는 과제와 연동시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다문화 환경을 반영하고 그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다문화 개념, 모델, 방법론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 학계, 시민사회, 이주자 집단들 간에 논란이 분분하다. 원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NGO를 통해서였는데, 이와 같이 사용된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과 승인의 의미보다는 한국의 단일문화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었다. 이는 단일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가 만들어내는 인종적·성적·계급적 폭력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혼혈인, 결혼이주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김현미(2008)는 다문화주의가 국가에 의해 '차용'되면서 정책적 실체 없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급기야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으로 귀결 또는 협소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주의의 국가적 '차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하나는 정착형 결혼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으로,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경제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와 '코스모폴리탄'적 소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자유주의 담론의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2.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현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2006년 4월 정부의 다부처 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의 두 정책이 채택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한국 사회가 인구 구성적으로 '다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다(김희정, 2007: 65).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의 양상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에서 다문화를 강조하고 타인종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은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소외집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이민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민자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왔다고 보인다. 주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정부에 의해 주도된 다문화정책에서 주요 지원대상이 된 사람들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인 코시안들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통합지원방안은 가족을 유지하는 것과 아동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는 인구대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인다. 현재 결혼이주자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않을 선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 아이의 '엄마'의 자격으로서만 공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은 외국 여성은 결혼이주자 여성의 주체로 설정될 수 없다. 이들의 한국내 권리는 이들의 이주 목적인 '가족 만들기', 즉 가사노동과 출산 및 양육을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의해 주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고 개별성에 기초하기보다는 남편과 아이에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미, 2008: 69).

또 다른 대상인 코시안 혹은 혼혈아동들에 대한 통합지원방안은 치열한 한국 교육제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 및 코시안 관련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을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 혹은 '한국 어머니'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코시안들이 '한국인'으로 제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이나 코시안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그들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의 성격이 더 강하다(김희정, 2007: 66-68)고 지적된다.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거론되어야 할 것은 장기체류 이주 노동자들의 배제 문제이다. 이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국내 이주민 문제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주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한국의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 민족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예는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2008년 9월부터 발효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준비를 위한 보고서이다.

2006년 10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대상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고,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선에서 며

물려야 한다”(박종보·조용만, 2006)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언급은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인정하는 것이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자민족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혼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함.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함”(박종보·조용만, 2006)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이 법은 다문화가족을 ‘합법적’ 결혼이주자로 그 지원의 범위를 한정시킨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사, 한국어, 예절과 전통교육 및 결혼과 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주요지원으로 하는 ‘동화교육’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등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은 이주민 내부의 합법과 불법, 여성 결혼이주자와 남성 결혼이주자, 친밀성에 기초한 사실혼과 법적혼 사이의 엄격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김현미, 2008: 67). 다문화가족의 범주가 내국인과 혼인한 ‘합법적 체류자’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을 배제하고 난민으로 들어온 아프리카계 가정을 배제하고 화교 가정을 배제한다(정혜실, 2007).

정부가 주도한 다문화정책의 기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또는 동화정책(assimilation)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실정에서는 전면적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이고, 동화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다문화주의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종보·조용만, 2006, iv)라고 밝힌 것에서 드러나듯이, 다문화주의를 배제시키지는 않지만 다분히 동화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다문화가족 연구의 관점과 쟁점

1. 다문화가족 연구의 관점

다문화가족은 가족이 형성하게 된 결혼 내부에서 복잡하게 작용하는 요인들과 더불어 결혼당사자들과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주변가족과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는 정치적·경제적·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영향력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각도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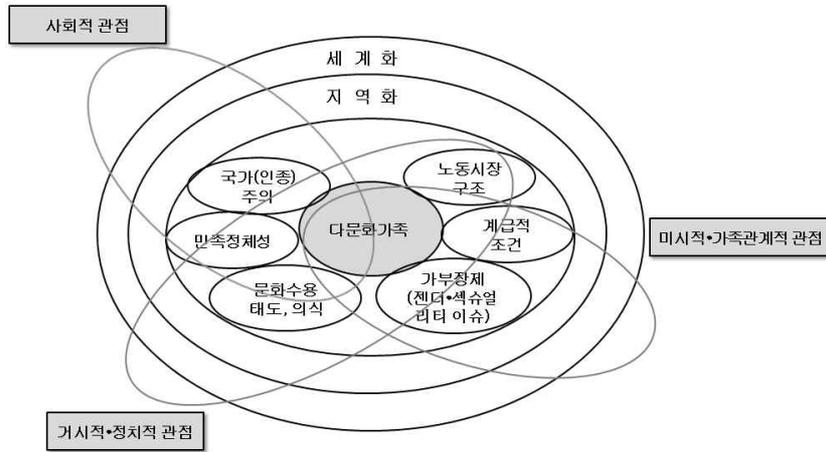
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족 연구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은 전지구적/세계화와 지역화의 맥락 하에서 살펴져야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여성이주 결혼자의 문제는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초국가적 현상이다. 가까이는 아시아권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멀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 호주 등 오세아니아, 미국, 캐나다 등 북미대륙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이주노동자나 혼인 이주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이민자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연구할 때도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력의 흐름을 짚어내고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관련요소들로 간추려 보자면, 국가(인종)주의, 민족정체성, 문화수용태도와 의식, 가부장제(젠더/섹슈얼리티), 계급적 조건, 노동시장 구조 등이다. 다음의 <그림 1>은 다문화가족의 관련요소들과 접근하는 관점들을 도식화한다.

국가주의의 문제는 다문화가족 안에서 국적이나 시민권 취득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을 배경으로 한 국민국가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타 국가에서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국적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고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부모세대들의 국적 취득이나 권리 획득, 자녀세대의 국적 부여, 소수자의 의식 등의 문제와 연관된다. 단일민족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순혈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팽배해왔고,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다문화시대의 도래’를 외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히 남아 있다.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문제는 사적 영역인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문화 보존과 공적 영역에서의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차이의 정체성(identity of difference)’에 대한 인정 등과 연관된다. 문화수용 태도나 의식 등은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과 관계되는데, 다문화가족 내에서 자녀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일차적인 자기정체성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다. 가부장제(젠더/섹슈얼리티)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 형성과 지원이 부계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에서 여전히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정 내 성적 불평등의 문제와 임신, 출산, 양육을 둘러싼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다문화가족과 연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계급적 조건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경제적 자원의 분배나 인정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노동시장의 조건은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연관해서 밀접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거시적·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미시적·가족관계적 관점 하에서 포섭되어 다루어진다. 이 요소들은 이



<그림 1> 다문화가족의 관련요소들과 접근하는 관점들

관점들에 중첩되어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고유하게 하나의 관점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과학이나 가족학에서 다문화가족을 다룰 때 부각될 수 있는 관점은 주로 미시적·가족관계적 관점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포괄성과 중층성,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때로는 거시적·정치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의 채택이나 보완도 필요하리라고 여겨진다.

2. 다문화가족 연구에서의 쟁점

다문화가족 연구에서는 시민권, 문화권, 젠더권(양성평등권)이 가장 침해하고도 심각한 쟁점으로 제기되어진다고 보인다. 문화권과 젠더권은 크게 보면 시민권의 범주하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시민권의 문제는 ‘국민’과 ‘시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 시민권은 ‘법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조직화된 정치공동체의 형식적 혹은 명목적 성원권(membership)’(이철우, 2004)으로, 공식적인 시민권에 대한 접근, 즉 국적 취득은 완전한 성원권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이며, 완전한 성원권이라는 개념을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시민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실천적 주체(agency)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티즌십’의 개념이 대두되는 반면, 국민은 본원적으로 국경을 초월할 수가 없으며 적극적 주체이기보다는 국가에 종속된 수동적 주체의 의미가 강하다(김영옥, 2007; 조형, 2006: 49). 이 시각으로 볼 때, 이주자들이 국적은 얻어 국민은 될 수 있지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투쟁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입국하는 여성들은 잠재적인 한국 국민으로 그에 상응하는 체류조건을 부여받는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결혼이민자들은 정부

에 의해 특별정책대상 집단으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식 명칭이 ‘여성결혼이민자’가 된 것은 그들의 이러한 ‘자각’과 관련이 된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국민 국가의 성원권, 즉 시민의 자격과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을 사람으로서 간주된다(김영옥, 2007). 하지만 그들에게 국민과 시민의 자격이 동시에 부여되는가는 상당히 논쟁적이다. 국적 취득의 과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격이 동시에 시민의 자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존재로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될 수 있지만, 시민성에 입각한 책임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 그러한 자격을 갖출 여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원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과 연관된 문화권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문화도 일종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화는 각 집단의 역사적 적응과 경험의 결과물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위계화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권은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문화개념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시민권의 하나로써의 문화권은 주류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정서적 자원을 공급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김현미, 2008: 61-62). Castles와 Davidson(2000)은 문화권은 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의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소수자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양식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며, 원치 않는 강압적 문화통합에 대항하여 주류문화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권과 관련하여 볼 때, 한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들은 일상적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강력한 ‘동화’이데올로기는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고 빨리 한국식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문화권과 관련하여 바라볼 때 핵심적인 것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대표할 권리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대표할 어떠한 통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김현미, 2008: 62-63).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중적 재현은 이들을 '가난한 나라의 최하층 일꾼', '불쌍한 인종' 등과 같이 한국인의 부채의식을 자극하여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온정적 시각에서부터, '부정적 존재 또는 오염의 근원'과 같이 한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외부인으로 바라보는 방어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한건수, 2003).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자 여성에 대한 대중적 재현은 '외국인 며느리'로서 한국 사회의 효의식의 약화와 돌봄 노동의 부채를 해결해 줄 존재로 한국문화에의 동화 노력을 보여줄 때만 가시화된다. 한편, '문화권'과 연관해서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응이 이들의 체류 안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김영옥, 2007). 이들은 체류비자 연장, 그리고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신청을 할 때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신원을 보증 받아야 하며, 이혼소송 중에는 취업을 금지 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포함 시키는 특례조항이 생겼지만, 이것은 '아이'의 어머니일 때, 즉 한국의 인구 재생산에 기여할 때만 누릴 수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적응교육을 포함하는 사회통합과정을 만들어 이를 이수할 경우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국가가 이러한 서비스를 복지차원이 아니라 영주권 및 국적취득과 연계된 의무조항으로 제공한다면, 비록 동화주의적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인다.

셋째, 다문화가족내 젠더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 부계혈통주의, 남성우월사상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양상은 다르지만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각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동남아에서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은 처음에는 농촌지역으로, 최근에는 도시지역까지 혼인의 추세가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우자와 거의 다른 세대에 속할 수도 있는 큰 연령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여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삶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그 성격이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하기는 하나, 그들은 매태혼적인 성격을 띤 혼인과정을 통해 남편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형편이 못되며, 더욱이 한국사회가 지니는 가부장제 하에서의 일반적인 편입과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그들은 저출산, 노령화 등의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더 손쉬운 정책의 대상으로 '발견'된 측면이 있다(김현미, 2008). 그들은 '한국인 아이를 출생하는 여성'으

로서 한국적 가족의 재생산에 기여하며, '모성' 이외의 '개별성'을 지닌 존재로는 인정되기 힘들다. 또한 그들에 대한 담론은 '외국인 며느리'로 수렴되면서 남성들의 동등한 배우자라기보다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지금의 젊은 '한국여성들보다 더 한국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이들이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 획득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에 반해, 주로 남성들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이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루더라도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국적 취득에 제한을 받았으며, 조기 적응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과 정책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실질적인 정책지원, 그 너머에 있었다고 보여진다(정혜실, 2007).

IV.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담론분석

1. 담론분석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전통적 의미의 담론은 논증적 언어,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들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이 범위가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언어들, 즉 일상적인 담화, 문학적·종교적·정치적 담론들, 지식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언설들, 나아가서 때로는 과학적 명제들을 포괄하는 말이 되었다(김귀분 등, 2005: 209).

담론분석은 질적 연구방법론 중 대화분석과 비슷한 지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연구방법을 뛰어넘는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는 1960년대의 철학자인 Austin(1962; 조영달, 2005: 217에서 재인용)의 말과 행동에 대한 생각 등을 기초로 하였다. Austin은 담론분석에 몇 가지 전제를 남겼다(Potter, 1997). 첫째, 담론분석은 반사실주의(anti-realism)의 성격을 갖고서 세상과 사회, 또는 사건들, 심지어는 내적인 심리세계까지도 담론 속에서 해석되는 방식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참과 거짓(true and false)'이 있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둘째, 담론분석은 분석에서 참여자들의 구성과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둬으로써 일종의 구성주의적 접근을 전제하고 있다. 셋째, 담론분석은 하나의 텍스트는 '역사적 이야기를 말하고 바깥 세계의 실체를 구성하고 이를 소개하는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반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푸코, 데리다 등으로 대표되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은 과거 물리적 권력이 지난 수세기 동안 담론적 권력으로 그 성격

을 달리하게 된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 접근의 새로운 지평을 연 푸코는 담론분석의 방법으로서 역사 속에서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계보학을 사용했다. 계보학은 담론 형성을 조건화하고 제한하고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분석한다. 푸코는 역사분석을 통해 지식과 권력과 억압 사이의 함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주는데, 지식이 어떻게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담합하고 그 다음 어떻게 스스로를 합법화시켜 나가며 ‘담론(discourse)’으로서의 힘을 행사하는가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권력의 작용은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역으로 지식은 계속하여 권력의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김귀분, 2005; 이정우, 1994).

담론분석은 지식과 언어에 대한 이론으로서 문학과 문화텍스트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포스트구조주의의 흐름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실제의 어떤 측면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담론분석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며, 많은 접근법들을 포함한다(Parker, 1992: 122). 하지만 담론분석은 어느 정도 명료한 개념들, 방법들, 혹은 이론들에 근거할 때만 학술적으로 평가된다. 하나의 텍스트나 이야기에 대한 단순히 ‘상식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담론분석의 전체적인 요점은 소박한 수용자가 쉽게 제공할 수 없는, 담론의 구조, 전략, 혹은 다른 특성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van Dijk, 1997: 1).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담론분석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지는 의미의 구성체계(meaning constituting system)로서의 언어라는 관념”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다. 책, 논문, 신문기사, 면담, 관찰, 그림 등의 텍스트는 담론적 틀 안에 위치 지워져 있다.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그 텍스트에 침투한 지배담론의 생산물이다. 의미는 텍스트를 위한 권력적 담론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체를 실제적으로 형성한다(Cheek & Roudge, 1994: 61). 따라서 텍스트의 담론분석은 단순한 내용의 서술 혹은 분석이 아니라,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것이다(Cheek 저, 이은주 역, 2005).

나아가, 담론분석은 텍스트를 정치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전통적인 사회과학에서 다루어온 연구주제들인 사회통제나 성의 불평등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예컨대, 성의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담론분석은 그러한 불평등이 대화 속에서 구성되고 정당화되는 방법을 취급함과 동시에 불평등을 유지하게 하는 논리적 정당화에 사용되는 자료(해석적 레퍼토리, 정체성, 구성범주 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담론분석은 기록된 대화뿐만 아니라 인터뷰나 텍스트도 중요한 자료의 기반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화분석보다는 혼합적인 사회과학의 방법이다. 물론, 어떤 담론분석은 대화분석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대화 전사물(transcript)을 주로 연구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담론분석 연구들은 이에 더하여 개방적 면담자료나 기록적 자료들

도 동시에 사용한다.

담론분석은 대화분석에 비해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를 하고 보다 사회학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제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담론을 분석하는 데 실천적이거나 보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영달, 2005: 217-225). 담론분석은 분석의 미시적 수준에만 남아 있지 않으며, 거시적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중요하다(Cheek & Rudge, 1994). 텍스트가 매개되어지고, 다음에 텍스트가 매개하는 맥락의 정치적·사회적 실재를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담론분석이 엄격한 분석의 형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사이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분야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발표된 다문화가족관련 논문들을 텍스트로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담론분석을 시도한다. 생활과학 분야 학회로는 가족연구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학회로 한정하여, 대한가정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생활과학회를 채택하였다. 가족 분야 관련 학회로는 한국가족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를 포함시켰다. 이들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들과, 이들 학회의 학술잡지인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지,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에 게재된 논문들을 합하여 총 63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가족학 분야의 연구자가 저술한 다문화가족 관련 단행본 1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나 텍스트를 미시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이들 논문의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V.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담론분석

본 연구의 텍스트로 설정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분야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나 학술잡지에 발표된 다문화가족관련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담론들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드러났다.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분야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의 초점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인 동화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가족유지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서 주로 다루는 초점대상인 결혼이민자여성을 수동적 약자에서 적극적 주체로 보려는 시각의 변화가 있고,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을 현장 실천 프로젝트

트로 인식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제한적 초점대상의 설정

가족연구 분야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의 초점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한다. 즉, 다문화가족을 다룬다고 할 때, 그 주된 연구대상을 '결혼이민자여성'으로 삼아, 이들이 이룬 가족이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경험이 다문화가족의 경험으로 일반화되는 인상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설정은 전통적으로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분야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많이 시도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특히 연구자 자신도 여성이 다수여서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 관계 형성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엄밀한 의미로 규정한다고 할 때, 이는 다양한 유형과 '차이'가 존재하는 다문화가족의 경험과 현실을 놓치는 지극히 협소한 범위의 연구대상 설정에 머물 수도 있다.

'다문화'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초점 대상의 설정은 몇 가지 범주의 연구대상들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다문화가족을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한국 여성이 결합하여 이룬 가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때, 이러한 설정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부계혈통주의를 중시하는 정부의 선택을 따르는 결과에 이른다. 즉 이러한 편중된 연구대상의 설정은 국민으로서의 자격 부여나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서 외국인 남성 노동자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을 결혼이민여성과 차별적으로 다루었던 정부의 행동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관련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외국인 남성 노동자들을 초점대상으로 해서 다룬 연구들은 거의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분야 연구경향의 편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상업화되고 불평등한 관계 결합이 아니라, 애정에 기반을 둔 내재적이고 수평적인 혼인으로 맺어진 중간계층의 국제결혼 커플이나 다문화가족에 접근하는 기회가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서 최연실 외(2007)의 한·중 국제결혼 커플 연구, 이지선·천혜정(2008), 최연실(2008)의 한·일 다문화가족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보다 정상화된 결합의 성격을 갖는 중간계층을 설정하고 있다.

셋째, 현실적 의미에서 다문화가족의 주체 대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게 연구대상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혼혈인'의 가정으로 명명되었던 한국 여성과 미군과의 다문화가족이나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다문화성을 부여하면서도 철저히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화교가족, 그 외의 다양한 범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명을 제한시킨다. '다문화'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새터민(탈북자) 가족이나 난민가족, 더 나아가 성적 소수자가 이룬 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외 대한 예외로 미군과 결혼한 한인여성의 가족관계를 다룬 송미성(2008)의 연구가 있고, 새터민 가족의 경우에는 진미정(2006), 진미정·이순형(2007)의 연구가 있으며, 난민의 경우에는 최근 콩고 난민 가정의 문화정체성을 다룬 박진숙·전혜정(2009)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정현숙·양순미(2009)는 농촌 거주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종래의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시도를 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가족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에서 제한적인 연구대상의 접근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외국인 당사자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상 다문화사회의 구축은 외국인들을 맞아들이는 주류 사회나 다수 일반인들의 다문화의식과 연관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을 연구 주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임주용·오윤자(2009)의 연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인식 개선 실태를 탐색한 오윤자·배지영(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가족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2. 동화주의의 수용

가족연구 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동화주의적 모형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담론들은 문화상대주의나 문화상호주의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은연중 동화주의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국가시책 등을 반영하고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의 중심을 형성하는 동화주의의 색채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화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식 예절교육, 요리교육, 한국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나 한국식 놀이 문화가 주로 벌어지는 축제나 행사 등의 이벤트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에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향 하에서 전개된 사업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논문들의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고 특별히 분석해 보지 않는 한 그 기저에는 자연스럽게 동화주의적인 성향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가족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주체들의 문화적 권리를 다룬 연구들은 부족하다. 자신들의 '차이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이러한 주체들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에 담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들의 적응 노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강기정·정천석, 2009; 강유진, 1999; 계선자 등, 2009; 구치순, 2007; 장진경 등, 2008; 이지선·천혜정, 2008; 채옥희 등, 2006). 몇몇 연구들에서는 동화주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제안하기도 한다(김오남, 2006b; 최금해, 2005).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는 다문화가족내의 아동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이양희 등, 2008; 이영주, 2008)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치열한 교육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적응시키는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서홍란 등, 2008; 진홍주 등, 2008; 최나야 등, 2009)이 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언급되어질 수 있는데, 타 분야에 비해 현재까지의 가족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주제가 소수의 연구(김오남, 2006b; 양옥경 등, 2009; 이소희·최운선, 2008)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도 특별히 다문화성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최배영(2009)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초급 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분히 동화주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상호주의의 기반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대한가정학회와 한국몽골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2009년 추계)를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학술대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문화상호주의의 정신이다. 특별히 한국과 교류가 많은 몽골이나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해서 일종의 파트너십을 이루는 차원에서 공동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그 국가들의 가족과 가정생활에 접근하여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심상준, 2009; 조희금, 2009). 그 외, 홍달아기·채옥희(2007)의 연구에서는 "따라서 여성들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일반적인 가족생활 가치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도 가족생활 적응에 필요하다고 본다"(p. 11)와 "국가간 생활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적응자세가 요구된다.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 축제의 교류나 민간 교류, 문화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결혼당사자뿐 아니라 전국민의 타문화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p. 11)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적으로 문화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사례를 제시하는 채옥희·홍달아기(2007)의 연구에서는 문화상호주의의 시도도 있지만, 동화주의의 의식도 남아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편에서는 '베트남의 사회환경과 가정생활문화 특성'을 살피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등 논문 구성에서 문화상호주의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본문 내용 중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을 면접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여 베트남 여성의 한국사회와 가정생활 적응을 돕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p. 62)와 "친척이나 친구, 이웃은 서로에게 생활의 정보를 주며, 베트남 여성들은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p. 72)의 내용에서 보여주듯이, 근간은 동화주의적 성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3. 가족유지의식

주로 결혼이민자여성을 접근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는 가족연구의 다문화가족관련 연구에서는 가족유지의식이나 다소 보수적인 가족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물론 이들 연구 중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부장제 의식이나 부계혈통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국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이나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저항적 자세를 환기시키는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오남(2006a)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보다 부부갈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 보편적인 한국가족 내에 존재하는 남성우위적 특성과 이를 더 부추기는 시부모의 존재 등이 이주여성에게 불만과 혼돈, 가족간 갈등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 이주여성 부부에게는 부부의 상호이해 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가부장적 의식의 완화와 양성평등 실천 프로그램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p. 20)"고 밝혀서 양성평등의 지향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이 다문화가족을 연구하는 여성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등의 연구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대체로 온건하게 가부장제 의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거나 연구결과의 기술에 있어서도 중립적으로 기술하거나 이러한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연구들도 있어서, 일면적으로는 가족연구 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연구들에서 성/젠더의 쟁점이 매몰되어 버리는 경향도 눈에 띈다. 홍달아기·채옥희(2007)의 연구에서 "[...] 따라서 한국의 확대가족문화를 결혼 전에 아는 것이 적응을 도울 수 있으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집안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와 문화적 특징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p. 742)라는 기술에서도 중립적인 기술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발효 이후, 각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관련 분야의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건강가정담론'이 학계에 자주 등장하고 분야간 학문적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건

강가정'이라는 개념이 부각되면서부터는 이 개념이 가진 긍정적 함의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이 개념이 들어간 연구제목을 선호하고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에도 확산되어 최근 연구들이 이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조성은 등, 2009; 채옥희·홍달아기, 2006). 건강가정의 개념 선호와 이를 중심으로 편중된 접근은 부부간 성적 평등권의 문제 제기나 갈등의 인식보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물론 가족분야에서의 다문화가족 연구들에서 부부갈등과 확대를 다루는 연구들(김오남, 2006a, 2006b, 2008)의 기저에는 가정의 화목이나 기능의 유지 등에 대한 가치가 깔려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출발점은 결혼이민자여성의 인권적 옹호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들은 다문화부부간 갈등이나 폭력을 다루면서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비교적 한계가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생활의 원만한 유지와 다문화가족의 기능적인 정착을 주요 지향점으로 하여 부부갈등을 다룬다(박정숙 등, 2007; 신경희·양성은,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5; 최연실 등, 2007; 홍달아기·채옥희, 2006, 2007).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다문화가족 연구에서는 이혼이나 가족해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본 연구 사례가 아직 없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인구통계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 입증되고 있다(최연실, 2008).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문제들은 등한시되거나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인식된다. 이는 연구대상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연구주제들보다는 결혼만족도나 결혼행복감 등의 주제들에 천착(김연수, 2007; 김은경, 2008; 양순미·정현숙, 2006; 이무영·강기정, 2007; 이미승·김갑숙, 2008; 추현화 등, 2008)해서 가족 유지에 더 경사되는 학문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4. 적극적 주체로의 시각 전환

가족연구 분야에서의 다문화가족 관련연구들은 점차 다문화가족의 형성주체인 결혼이민자여성이나 가족성원들을 '수동적 타자'나 '문화적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자기 삶을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꾸려 나가는 '적극적 주체'로 전환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강조하거나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강점에 주목하도록 촉구한다.

김오남(2006a)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주도적인 존재로 기술한다. "[...]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주여

성을 약자와 피해자로 보는 차별화되고 타자화되거나,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성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주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이미지화하고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이주여성들이 적극적인 삶의 전략과 행위자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이러한 고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현상 그대로의 관점과 이주여성을 보다 '주도적인 선택인(driver of life)'으로서 바라보는 강점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p. 21). 또한 한·중 국제결혼의 갈등과 적응 경험을 다룬 최연실 외(2007)의 연구에서도 "한·중 국제결혼의 증가와 정상화는 한국사회와 중국사회의 연대 증진, 상대 문화의 수용과 이해, 나아가서는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권 안에서의 혼성정체성의 형성과 혼성문화의 창조와도 연계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pp. 294-295)고 국제결혼의 의의와 강점을 부각시킨다.

최근 심층면접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다룬 장진경·전종미·신유경(2009)의 연구에서는 이 강점전략이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갈등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문화가족만의 강점을 살펴보고 잠재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적응요인들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긍정적으로 접근한다는 데서 또 다른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여성은 사회 및 가정에서 갈등 및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남편과 시집식구와의 잠재되어 있는 친밀성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다양한 지지체계와 강한 연계를 맺으며, 한국 사회에서 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질을 통해 가족정체감을 형성하여 높은 성취감과 밝은 전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그들의 가족 및 사회와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무엇을 삶의 의미로 삼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충분한 가능성에 집중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p. 180).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성원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서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족분야에서는 다른 연구분야와 달리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을 소수자나 약자로 보고서 옹호적 입장에서 그들을 다루어본 경험이 거의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강점이나 잠재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을 소수자로 인식하고 접근하면서 얻게 되는 성찰적 경험이 누락이 되고 다수와 소수/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갈등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현장 실천 프로젝트로서의 인식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년 9월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입법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양성 인력들도 이러한 기관들에 진출함으로써 주요한 실천 현장을 지니게 되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주력 현장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분야의 교육이나 양성과정에서 배출한 인력의 취업 활로 모색, 전체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 속에서 보조를 맞춘다는 역할 인식, 관·학협력의 수행과 학문의 사회적 참여라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연구와 이론화 작업과의 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면,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연구들에서는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복지서비스 개입의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며 결혼이민자여성이나 그 가족들의 역량 강화를 주요목표로 설정하는 '프로젝트담론'의 출현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부쩍 가시화되고 있다. 즉 각종 학술대회나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 공론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의 발표가 활성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학술대회들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정부의 가족정책을 논하는 토론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 위치(김경신, 2006, 2009; 설동훈, 2006)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구들이 쇄도한다(강성희, 2009; 오윤자, 2007, 2009; 오윤자·도은숙, 2009; 오윤자·박선민·배지영, 2008; 오윤자·배지영, 2009; 조성은·정지영·김명희, 2009; 차성란, 2009).

정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이에 상응하여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2008: 65)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의 중개업자에 의한 '인신매매적' 속성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연구물들이 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피해에 주목하기 보다는 '사회통합담론'으로 급선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등의 각종 연구용역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이벤트 사업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프로젝트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현장에 기반한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학문의 현실 참여나 실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성이 부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성 사업들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학문적 논의와의 연계가 취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이나 이론화 작업

과 관계해서 강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점으로는 경험과학, 실천과학으로서의 특성이 강한 생활과학이나 가족학의 응용분야에서의 현실에 기반을 둔 자료들이 집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료 축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토착현실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이들 자료들이 현재까지는 산발적,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주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 특성에 기반 하여 독특성이나 차별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고 있으나, 자료가 전국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서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실천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여주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가족연구분야의 결과물 중에는 타 분야에서와 달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모형 탐색(강기정, 2007)이나 적응이나 교육 프로그램(강혜경 등, 2009; 계선자 등, 2009; 김오남 등, 2008; 이무영·강기정, 2007; 이미승·김갑숙, 2008; 이은주, 2007; 채옥희, 2006)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이 누리는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생활과제들을 해결하고 현재 처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거시적인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전반적인 다문화담론의 이론적 맥락의 고려와는 동떨어져서 이루어진다면 자칫 기능적인 적응기술의 도입만을 강조하게 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 검토를 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가족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장 실천 프로젝트로서의 인식은 사실상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쳐 앞에서 제시된 담론분석의 결과인 제한적 초점대상의 설정, 동화주의 수용, 가족유지의식, 적극적 주체로의 시각 전환 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대상, 연구문제, 연구방법, 관점과 의식 등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장 실천 프로젝트로서의 인식은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 나오며

본 연구는 현재 가족연구 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다만 하나의 '시대적인 유행'인가? 아니면 연구자들의 '실천하는 행동(실행)'이 드러난 것인가? 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한편으로는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담론을 분석하고 성찰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행’의 의미를 둘러싸고 또 다른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연구자들의 주요임무인 논문이나 글쓰기 등으로 다문화가족을 ‘연구하는 활동’으로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을 직접 만나고 돕는 ‘실천하는 활동’으로 실행할 것인가? 물론 본 연구가 주로 학술논문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학술활동으로만 의미가 한정되기가 더 쉽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제의 개입활동을 해나가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직접적인 실천을 뜻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본 연구에서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과연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담론의 현상적인 양적 증가가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담론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주로 생활과학이나 가족학에서의 연구들이 어떠한 시각을 채택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연구가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관련 담론들과 어떤 연계를 갖고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도 검토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생활과학이나 가족학 등의 분야에서 행해진 다문화가족연구에서 나타난 담론은 제한적 초점 대상의 설정, 동화주의의 수용, 가족유지의식, 적극적 주체로의 시각 전환, 현장실천 프로젝트로서의 인식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연구에서 산출되는 다문화가족담론은 관주도형의 다문화주의나 정책에 반영된 지배담론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등이나 다문화가족 성원에 접근하고 분석하는 동화주의적 시각이나 전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부계혈통주의’를 중시하는 가족환경에 대항하고 양성평등적 시각을 견지하려는 노력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지배담론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비하면 문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이 분야의 다문화가족연구는 정부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포용하고 다른 외국인 체류자와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들을 ‘자기 삶의 기획자’ 등 능동성 주체로 보는 쪽으로 시각을 전환하거나, 이들을 한국 사회에 안착시키려는 각종의 현장사업 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담론은 저항담론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배담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가족연구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담론은 전체적인 거시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기보다는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논해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생활과학이나 이와 연관된 가족학 분야가 가족이나 가정의 내부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에서도 가족의 역동이나 관계 분석, 가정생활에서의 기술적 향상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 양적으로 다문화가족관련 연구 성과가 많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생활과학이나 이와 연관한 가족학 분야에서의 거시적 관점의 부재가 단지 다문화가족 연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 분석 수준에서 미시적·관계적 관점이 거시적 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연관성이나 중층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보완이 필요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야의 다문화가족 연구들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다문화를 논하는 여타 사회과학에서의 이론 전개나 학문적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면서 분석의 범위가 가족이나 가정 안으로 협소하게 국한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자칫 다문화가족을 연구하는데 있어 거시적인 체계와 미시적인 체계의 연계 분석을 통해 높아질 설명력을 놓치고, 학계 전반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고립,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연구에서 형성된 다문화가족담론은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고 지향하는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의 ‘실천’의 의미는 한 연구자가 인간적 성찰을 수행하고 자기해방적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관심대상과 직접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이 이론보다 우선시되다보니 가족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연구는 지나치게 표현하면 ‘이론 부재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조망 안에서 설명되기보다는 개별적인 단일연구의 성과를 제시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양상은 실상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자료구축의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통한 대상 접근의 기회를 학문적 차원에서 잘 활용하여 현장에 기반한 자료들을 이론화의 작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노력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상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를 분석한 것을 다시 분석하는 것’인 담론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분석의 기본텍스트가 되는 논문들이 양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범위가 광범위하여, 치밀하고도 정교한 내용의 분석은 달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시대의 도래’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적 배경과 기회 ‘다문화담론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 상황에서 가족연구의 다문화가족 연구가

어떤 성격과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 성찰하고, 또한 앞으로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기념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실상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모두 주목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가족학자의 본령(本領)이다. 따라서 연구자로서 가족학자는 하버마스의 말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해방적 관심도 추구(김재현, 1996)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다문화주의를 연구하면서도 실천적 현장에서 다문화운동에 투신하는 한 활동가의 변(辯)을 빌려 해방적 차원에까지의 자기 확장에 대한 기획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다문화주의는 담론적 구성물을 넘어 실제로 실험되고 시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공론장을 넘어 실제의 시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거나 추진하는 주체들이 담론의 주인공에서 실질적인 다문화적 삶의 주인공으로 자기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행적인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가 제도 개선이나 권리의 확장을 넘어, 다른 존재의 인정과 '익숙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는 실존적인 영역으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오경석, 2007: 54).

【참 고 문 헌】

강기정(2007). 국제결혼 가족복지 지원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3), 131-145.

강기정·정친석(2009).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에 대한 경험.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한국몽골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강성희(2009).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사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한국몽골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강혜경·계선자·김연화(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 교과목 개발.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한국몽골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계선자·강혜경·정미선(2009). 다문화가족의 결혼적응력 향상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한국몽골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 29-53.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김경신(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_____ (2009). 다문화가족 사업 평가 및 정책 대안. **한국가족정책의 성찰과 전망**.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귀분 외(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김도희·김성이·신효진(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53~78.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김영옥(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김오남(2006a).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_____ (2006b).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_____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3), 47-73.

_____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서울: 집문당.

김오남·김경신·이정화(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4.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김인숙(2004). 사회복지사의 "가족" 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53-70.

김재현(1996).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 장춘익 외 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주제와 쟁점들**(pp. 19-62). 서울: 남남출판.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6.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pp. 57-79). 서울: 한울아카데미.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박구용(2003). **우리 안의 타자: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박정숙 · 박옥임 ·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종보 ·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박진숙 · 전해정(2009). 난민 가정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화기술 지적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1.
- 박해광(1999). 경영담론의 특성과 노동자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http://www.mw.go.kr>.
- 서홍란 · 김기언 · 김양호(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설동훈(2006). 한국인결혼이민자가족: 현황과 정책.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송미성(2008)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 미군과 결혼한 한인여성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신경희 · 양성은(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심상준(2009). 베트남의 생활문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상관 속에서.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양순미 ·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옥경 · 송민경 ·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오강남 주석(1995). **도덕경**. 서울: 현암사.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pp. 22-56). 서울: 한올아카데미.
- 오윤자(2007).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패러다임 모색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73-92.
- _____ (2009).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한국가족정책의 성찰과 전망.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오윤자 · 도은숙(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교육 현황.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오윤자 · 박선민 · 배지영(2008). 다문화가족지원 상담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오윤자 · 배지영(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본 다문화 인식개선 실태 탐색 연구.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 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옥선화(2009). 다문화사회와 생활과학의 역할.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유명기(2004).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최협 · 김성국 · 정근식 · 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윤평중(1998). **담론이론의 사회철학**. 서울: 문예출판사.
- 이무영 · 강기정(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2), 29-44.
- 이미승 · 김갑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4), 123-143.
- 이상길 · 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성대 동아시아지역 연구소.
- 이소희 · 최운선(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3), 163-185.
- 이양희 · 황소영 · 김진희 · 이혜숙 · 윤보람(2008). 다문화가정의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및 아동의 학교탄력성 간의 관계: 농촌 국제결혼자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가족과 문화**, 19(1), 29~60.
- 이정우(1994). **담론의 공간: 주체철학에서 담론학으로**. 서울: 민음사.
- 이지선 · 천혜정(2008).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한 일본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57-76.
- 이철우(2004). 시민권, 어떤 개념인가. 후기사회학회대회 발표문.
- 이혜경(2004). 국가간 노동이주와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가족과 차이.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임주용 · 오윤자(2009). 청소년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임혁백(200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족화해 방안. 민주 통합과 국민 화합의 새 패러다임. 민주평등 통일연구회 제1차 정책포럼 보고서.
- 임흥빈(2001).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와 문화다원주의. **철학연구**, 54.
- 장은주(2000). 문화적 차이와 인권 -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49.
- 장진경 · 전종미 · 신유경(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09).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 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전홍주 · 배소영 · 광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161-186.
- 정현숙 · 양순미(2009).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7-29.
- 정혜실(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오경석 외 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pp. 167-194).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성은 · 정지영 · 김명희(2009).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조영달(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조형(2006). 여성주의 시민화시대의 시티즌십과 시민사회.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조희급(2009). 몽골 결혼이민자여성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진미정(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7), 141-152.
- 진미정 · 이순형(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5), 63-74.
- 차성란(2009).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 통합의 지향성.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채옥희(2006). 국제결혼가족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09). 몽골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채옥희 · 홍달아기(2005).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과 대처에 관한 연구. **생활자원개발연구**, 7, 1-17.
- _____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63-78.
- _____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채옥희 · 홍달아기 · 김정훈 · 이남주(2006).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 적응 전략.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금해(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최나야 · 우현경 · 정현심 · 박혜준 · 이순형(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55-268.
- 최배영(2009).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07-125.
- 최성환(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문화형식(이해)의 변동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4, 287-310.
- 최연실(2008). 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인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9-298.
- _____ (2009). 한·일 다문화가족의 경험과 적응. 한국가족정책의 성찰과 전망.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연실 · 권용혁 · 김태성 · 우실하(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형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최종렬(2008).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 추현화 · 박옥임 · 김진희 · 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통계청(2009). <http://kosis.nos.go.kr>.
-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이미지.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 한승원(2007). '다문화주의' 담론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정책 방향. **정책연구**, 151, 1-33.
- 한인섭(2000). 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인가.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달아기 ·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_____ (2007). 국제결혼 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Castles, S., & Davidson, A.(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N.Y.: Routledge.

Cheek, J.(2000). **Postmodern and poststructural approaches to nursing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이은주 역(2005). **간호학연구방법론: 포스트모던 포스트 구조주의 접근법**. 서울: 대학서림.

Cheek, J., & Rudge, T.(1994). Inquiry into nursing as textually mediated discourse. In P.Chinn(Ed.), **Advances in methods of inquiry for nursing**(pp. 59-67). Gaithersberg, MD: Aspen.

Gouldner, A. W.(1971).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Y: Basic Books. 김쾌상 역(1981). **현대사회학의 위기**. 서울: 한길사.

Gubrium, J. F., & Holstein, J. A.(1990). **What is family?** Mountain View, California: Mayfield. 최연실 · 조은숙 · 성미애 공역(1997).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가족담론**. 서울: 하우.

Ki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Kimlicka, W., & Banting, K.(2006).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0.

Macdonell, D. **Theories of Discourse**. 임상훈 역(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Osmond, M. W.(1987). Radical-critical theories.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pp. 103-124). NY: Plenum.

Parker, I.(1992). **Discourse dynamics: Critical analysis for social and individu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Potter, J.(1997). Discourse analysis as a way of analysing naturally occurring talk. In D. Silverman(Ed.),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 and practice**(pp. 144-160). London: Sage.

van Dijk, T.(1997). Analysing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nd Society**, 8(1), 5-6.

접수일 : 2009년 08월 14일

심사일 : 2009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05일